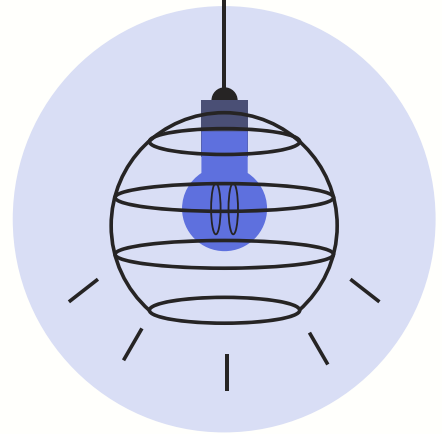


2025.4.20.

2025
장애인
선교주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리교회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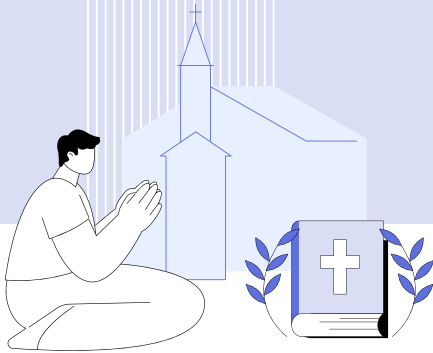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

목 차

● 설교 예문 정현범 목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03
● 예배문 함혜원 목사	09
● 성찬 예문 이창범 전도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찬 예문	15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1 이창익 목사 관음동을 기쁜 소식(복음)의 동으로!! - 소망교회	22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2 김도진 목사 미문의일꾼교회 장애인사역	28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3 송호일 목사 손끝세농맹인선교회	31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4 조준호 장로 ‘또 하나의 밀알’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엔젤스헤이븐	36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5 최철용 목사 한사랑교회는 행복한 예배로 행복합니다	40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4:16~21



정현범 목사

동부연회 강릉북지방회 영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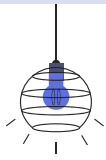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장애인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에 미국을 움직이는 20명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니 에릭슨’은 19세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다쳐 온몸이 마비가 된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몸이 되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저를 이 세상에 살려 주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가만히 보니 입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붓을 물려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림을 잘 그렸던 그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더니 기가 막

힌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볼펜 회사에서 이 소녀가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광고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니는 이 제안을 허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 아래에는 ‘PTL’이라는 글자를 써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라”(Praise The Lord)의 머리글자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하고 기도했던 것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소망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술뿐 아니라 수족을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중년이 넘어선 그녀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아선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농아교회 목회자들과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를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수군거립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근처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재활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활원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사고 혹은 살아가면서 받은 충격에 의해 정신이상인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이상한 눈초리로 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편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요 9:2)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3)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누구의 죄라고 하



지 않으셨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외모와 언어와 빈부귀천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몸 공동체이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내리는 판단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살펴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 방문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인식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서는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의 중간에 소개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애 활동 초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방인 과부와 이방인 장군에게 베푼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에 대한 요약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2절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야 하며,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자를 해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이 가지고 있던 토지도 각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소식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자들에게 전해진 소식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미 귀환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계속해서 곤경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서 해방되리라는 희년(은혜의 해)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공생애 사역을 통하여 펼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와 각종 병자, 여성과 어린아이들, 장애인 등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 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 등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육체로 행하던 자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문의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

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눅 7:19) 마침, 그때 예수님께 서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악귀 들렸던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바쁘다고 다 사양합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노하여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가난한 자와 병자와 장애인들이 초청받아 참석해야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자와 장애인 등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 회복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장애인이 된 자들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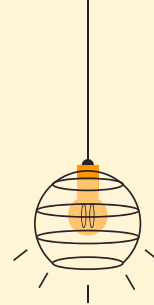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관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인간 감정의 근원지라 생각되었던 심장, 내장, 간장 등의 기관이 움직였다는 뜻으로서 결국 “그의 폐부가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고 그 아픔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생겼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의 형편과 처지, 이웃의 형편과 처지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안타깝게 여기고, 곁에서 같이 있어 주며, 손 잡아 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과 소외된 자인 나병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을, 따뜻하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잡아 주셔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이웃인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약하고 불편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말로 격려하며, 손과 발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문

함혜원 목사

서울남연회 강남동지방회 서울농아교회



1. 신앙고백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어떤 이유로든 차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될 때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헌신했던 웨슬리의 사회적 구원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2. 공동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늘 주님을 향한 흠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장애인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만들어 갈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라도 소외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요, 진짜 장애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그 사명의 무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찬송가

93장 | 예수는 나의 힘이요

415장 | 십자가 그늘 아래



4. 성경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6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8~2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1~3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24절)**



5. 헌금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

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외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은 풍요로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을 구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장애인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헌금 찬송가

438장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503장 | 세상 모두 사랑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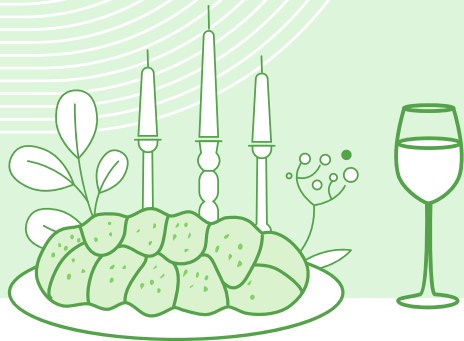


7. 파송의 말씀

집례자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십시오.

회 중 |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찬 예문

이창범 전도사

경기연회 안양지방회 우화교회



1. 예문 소개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찬 예문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요청받고, 떠오르게 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의 종류가 15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필자의 경우 지체 장애에 해당하며,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만난 공동체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분급에 앞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면 의사를 묻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사려 깊은 안내가 예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동을 도와줄 수 있다면, 새 예배서의 성찬 예문만으로 예배드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면에 지적 장애인의 경우 가

능한 쉬운 언어로 작성된 예문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큰 글씨 예문이나 점자 예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린 경험의 정도에 따라 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두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신이 목양하는 지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스럼없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은 서로의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장애가 있는 분들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소근육 발달이 잘 되지 않아 일회용 성찬 키트를 잘 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쉽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이해하며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심방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동 경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식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감리교신학대학교 나눔의예전학회에서 드려진 성찬 예배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 보행이 불편한 저를 배려라는 이름으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줄이 길다며 먼저 앞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행이 느린다고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은 효율적인 진행이라는 이유로 맨 처음에 혹은 맨 마지막에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있게 별도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조금 느린 보행 속도를 용인함으로, 충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충분한 은혜의 시간을 묵상할 수 있게 도울 뿐입니다.

이 외에도 목회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많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 교회에 있다면 수어 통역이 필요할 수 있고, 큰 글자로 인쇄된 예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성찬 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 예문은 하나의 예시이며,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괄호 속에 안내되는 지시문을 최소화하고, 집례자가 모든 순서를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안내를 예문에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최대한 쉬운 언어로 예문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를 위한 성찬 예문집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성찬 예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성찬 순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의 약식 성찬 예문을 따라 작성했습니다. 다만, 주님의 기도와 분병례 사이에 평화의 인사를 추가하여 공동체의 하나 됨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2. 성찬 예문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식탁으로 나아오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기도

집례자 | 이제 이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 중 |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집례자 |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 중 | 아멘.

성찬 제정사

집례자 |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떡을 두 손으로 든다.) 감사기도를 하신 후 떼어(떡을 두 손으로 떼는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떡을 내려놓는다.)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잔을 두 손으로 든다.)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린 새 약속의 피다.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잔을 내려놓는다.)

성령 임재의 기원

집례자 | 기도합니다. (떡과 잔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차려진 떡과 잔 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하셔서 이 떡과 잔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집례자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합시다.

회 중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평화의 인사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 중 |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셔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분병례

집례자 |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두 손으로 들고 떼면서) “예수님의 한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떡을 내려놓는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잔을 두 손으로 든 후) “하나의 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잔을 내려놓는다.)

회 중 | 아멘.

분금

집례자 | 이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시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계실 때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 묻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직 낯선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는 구별된 마음으로 먼저 두 손으로 떡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잔을 받으실 때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이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주님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주님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성찬 후 감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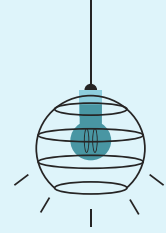
집례자 | 다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도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예배서, 도서출판kmc.
교회학교를 위한 성찬 예문집, 열린성찬, 민들레커뮤니티.





관음동을 기쁜 소식(복음)의 동으로!!

이창익 목사

삼남연회 대구지방회 소망교회

13년간 불교의 성지에서 걸어 온 기나긴 여정

유난히 폭설이 내리던 2013년 1월 3일, 지적장애인 큰 딸(당시 초3)이 학급 내 집단 폭행으로 실어증에 걸리며 서울을 무작정 떠나기로 마음먹고 대구로 내려와 이삿짐을 내려놓던 날이다. 부임 당시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가정 3명이 전부였던 교회. 대구의 변방 지역이면서도 유독 정신질환자와 강력 사건이 많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며, 더군다나 동네 이름마저 ‘관음동’인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의 성지인지라 ‘교회의 무덤’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사실을 나중해야 전해 듣고 그저 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더구나 나에게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모르는 ‘무혈성 대퇴부 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2016년, 2018년에 각각 양쪽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로 현재 까지도 지팡이에 의존하여 거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 후 6~7년이 지나는 동안 단 2~3명의 새신자만 정착했을 뿐 사실상 무결실에 대한 좌절감으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여간해 귀에 담지 않았던 거의 매년 찾아오는 교회 담임자 청빙 요청에 마음을 돌이킬 무렵 느닷없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 교회를 찾던 공황장애, 알코올중독 등 몇몇 가정이 등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연히 입소문을 타고 다른 장애 가정들이 출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애초 목회 계획 목록에 없던 일들이기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현재 소망교회는 공황장애, 과대망상, 환청, 대인기피증, 알코올중독, 부모의 학대로 인한 가출, 미혼모, 사업 실패로 인한 무력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30여명을 교회 구성원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최근까지 무당 일을 해오던 분이 정착하며 키우던 반려견의 이름을 ‘목탁’에서 ‘예탁’으로 바꾸는 웃지 아니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일도 있다.

우리 교회 성도 중 새벽과 저녁 시간에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정상인보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에 기도할 때 밖에서 얼핏 들으면 마치 동물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이때부터 주민들이 부르는 교회 별명이 ‘동물원 교회’였다. 이 소문은 곧바로 교회 건물주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후 이사하는 건물마다 거반 쫓겨나기를 반복하며 13년간 무려 11번의 이사를 해야만 했다. 그러다 2023년 전세계약으로 입주하게 된 직전 건물에서 마저 일방적으로 비워달라는 통보로 그저 맘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만 얻고자 하여 마련된 장소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생소하고 낯선 개념의 주민 주도형 비영리 마을카페라는 ‘낮은 울타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핑크빛 꿈은 이내 산산이 부서졌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소문 돌면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에서 떠나라는 수모를 수차례 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2024년 2월 오픈한 ‘낮은 울타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주민들과 친숙한 관계로 이어졌고, 이윽고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등이 방문하며 사회관계망을 통해 소식이 전파되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장애인 사역은 예상치 않았던 터라 내키지 않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결코 쉽지 않는 고심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교회로 이끄셨고, 누군가는 이 사역을 맡아야 할 일이라면 ‘기왕 제대로 해보자’는 결심으로 나는 서울의 00대학원에 입학해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13년의 결코 짧지 않은 세월에 마침내 결실을 본 ‘낮은 울타리’는 지역 주민의 호응에 힘입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설립 목적 취지에 대한 소중한 결과를 수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직접 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더 큰 자산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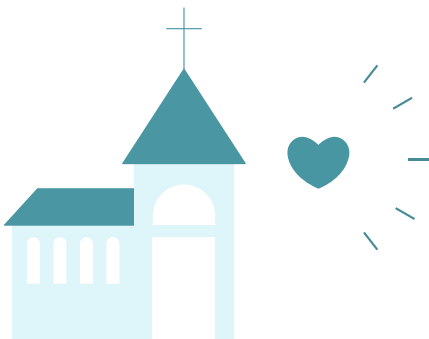
진심컨대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게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들이다. 내게 이들은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던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시선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는 장님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무리 하며

지난 13년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장애인 사역에 대한 크고 작은 사연들을 모두 소개하기란 매우 벅찬 일이며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송구하기만 하다.

십수 년 이러한 사역을 이어오는 대다수의 교회가 갖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매년 같은 재정의 고갈을 반복하는 일일 것이다. 이 분야 사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던 장애를 직접 나의 현실로 맞이하다 보니, ‘장애’라는 것은 특정인에만 해당하는 일이 결코 아니며, 누구든 당장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실존적 실재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장애 사회’란 나와 전혀 무관한 다른 세계가 아니요, ‘나’의 다름 아닌 ‘우리’임을 넉넉히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기도 그리고 이 분야 사역자들이 갖는 가슴앓이와 물질적 시름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낮은올타리 공동체 사역 소개

● 비영리 무료카페 운영

- 1)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 주도형 마을 문화공간
- 2) 무료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굿네이버스와 업무 체결을 맺고
1천원 자발적 기부로 대체
- 3) 하룻길 엄마 정류장
- 4) 서로서로 악기 교실
- 5) 어린이 도서실
- 6) 장소 무료 대여 (가족, 동호회 및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1시간 교실 운영)
- 7) 무료 프린트 서비스

● 장애 증상별 1:1 성도 보살핌

공황장애, 과대망상, 대인기피증,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성도에 대해
요일별 동행하며 속마음 들어주기

● 찾아가는 마을 사역

독거노인 대화 파트너, 반찬 봉사, 어르신 병원 차량운행

● 무연고자 무료 장례

● 이단교회 이탈자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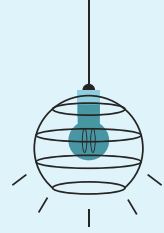
● 불신자 실버 복음전도 (정기적 요양병원 예배)

● 우리동네 예배당 운영

최근 기존 건물에서 쫓겨나 마련한 낮은울타리 카페 공간을 예배실로 삼아야 하는 터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존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우리동네 예배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조그만 안내판만 거치하였다. 그간 1년 동안 주민 주도형 마을 카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과거 한 번쯤 교회를 다녔던 향수를 가지신 이웃들, 신앙생활에 대한 미련은 있으나 쉽사리 교회라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분들을 위해 다시한 번 예배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일에 생소한 도전을 해 본 것이다. 현재 우리동네 예배당은 커튼이 없는 전면 통유리로 되어있어, 거리를 지나가는 이웃 누구든 우리의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예배당을 노출하였다.



우리동네 예배당이 된 낮은울타리 카페



미문의일꾼교회 장애인사역

김도진 목사

중부연회 인천동지방회 미문의일꾼교회

인천의 동구 구도심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화도진 공원을 따라가다 조그만 골목을 걸어 들어가면 담쟁이넝쿨에 둘러싸인 건물이 하나 나온다. 미문의일꾼교회이다. 1961년 미국인 조지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건립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이다. 조그만 초가집으로 시작해 지금의 슬래브 건물의 교회가 되기까지 이곳은 인천 민주노동운동과 주민운동,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 기억되는 곳이다.

미문의일꾼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도시빈곤 문제를 고민하며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장애인 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

1. 미문의일꾼교회 장애인 사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1983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사역’은 성전 미문의 역사와(영성과 치유) 오병이어의 역사(실천과 나눔)를 실현하려는 선교사역이다.



2. 교회 위치

인천시 동구 화도로 66 미문의일꾼교회

3. 사역

●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의 한 가족으로서 매주 공동예배를 드린다.

● 장애인 교육

작은자 야간학교 : 장애인 검정고시 야학으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야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검정고시 야학, 작은자 야간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 장애인 상담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담사역 : 장애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역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가정상담’과 ‘성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을 향한 지역복지

- 1) 휠체어 무료 대여 :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휠체어 무료 대여사업을 한다.
- 2) 푸드뱅크 음식 나눔 : 교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먹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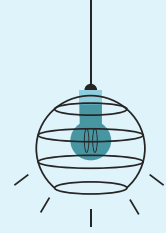
● 여성 노동자의 길 함께 걷기

장애인 여성 노동자와 민주 노동운동가가 함께 걷는 동행 행사



장애인 여성 노동자와 함께 걷는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행사





손끝세농맹인선교회

송호일 목사

호남특별연회 전남서지방회 실로암교회 소속목사
진안디아코니아 수도회 부원장

1. 손끝세농맹인선교회

손끝세농맹인선교회는 풀어쓰면, ‘손끝으로 만들어 가는 세상’ 선교회이다. ‘농맹인’(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이를 지칭한다)은 농인의 삶을 살다가 시각의 문제가 생겨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시각·청각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다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발생하면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들을 농맹인, 시청각 장애인이라 나누어 부르는 이유는 그 두 부류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시각 장애를 가졌다가 청각 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긴 이들을 시각 기반 시청각장애인—이들은 점자를 알기 때문에 점자 단말기를 써서 옆에서 자판을 쳐 주는 사람(통역사)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농맹인은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 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긴 이들은 농기반 시청각장애인이라 부르며 이들은 ‘촉수화’라는 수단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어 시각 장애인들처럼 점자를 배워 소통해야 한다. 어렸을 때 습득하지 못한 채 중도에 점자를 배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남부연회 미문장애인선교회 대표로 재직 중에, 선교회에 시각 장애로 살다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갖게 된 친구들과 함께 목요일 오후 시간에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예배의 시작이 대한민국 최초의 농맹인(시청각 장애인) 예배일 것이다. 3년여 예배를 진행하다 북수원교회 부목사로 이 임하며 이 예배는 중단되었다. 북수원 교회 사역(1999년~2007년) 8년의 시간 동안 2005년에 장애인 주간보고 시설을 설립하고 책임을 맡았다.

북수원 교회를 나와서 다시 시청각 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예배도 장소도 그때그때 정해 서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헤어지길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5년, 30여 명의 인원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인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했다. 제주도 여행 후,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2016년에 공식 농맹인 예배를 시작했다.

다행히 영락농인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까지 마련해주어 농맹인 4명으로 시작한 예배가 지금에 이르러 농맹인은 30여 명이 넘게 등록되고 봉사자들까지 1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전라도 광주, 인천, 온양, 대전 등에서 서울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보통 60-70여 명이 모이지만 사회자 목소리만 청아하다. 모두가 손끝으로 찬양하고 일대일 통역자들에 의해 ‘촉수화’로 말씀을 전달받는다. 9년 차 된 올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51명의 인원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왔다.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어두운 골방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던 농맹인들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농맹인의 예배는 이웃과의 소통이 시작이요, 골방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던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농맹인들이 서로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두 마리의 학이 춤추는 것 같다.

2. 농맹인 예배

전라도 광주에 사는 손창환 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위해 꼭두새벽에 일어나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린다. 손창환 님을 안내하기 위해 전날 진안에서 올라와 지인의 집에서 자고 마중하러 간다. 안내인과 함께 나온 그를 반갑게 맞고 독립문에 있는 영락농인교회까지 2년 동안 다니다가, 3년 차에 미국에 열린 농맹인 세계대회에 다녀오자, 그는 말했다. “전 이제부터 혼자 다니겠으니 목사님 마중 나오지 마세요.”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농맹인들은 혼자서 무슨 일이든 한다고 혼자서 해 본단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믿음 없는 난 다음 달에 마중을 갔다. 곁에 내가 서 있는지도 모르는 채 안내실로 가서 본인은 종이에 농맹인이라 알리고 종로3가까지 간다고 썼다. 당황한 안내자는 무전기를 들고 전철 운전자에게 “내가 내릴 때까지 전철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 후 안내자는 전철 안에 있는 승객에게 다가가 혹시 종로3가까지 가는지 물어보고 이 사람을 종로 3가까지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전철에서 내리며 출발 신호를 보냈다.

손창환 님 때문에 곁에 서서 그날의 기적을 보고 있었다. 종로 3가에 도착하자 안내를 받은 승객은 손창환 님을 내려주었다. 3호차 17호문에서 다음 안내자로 할 머니 한 분이 마중 나왔다. 손창환 님이 할머니에게 마무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신다. 귀가 어둡기도 어두울 것이다. 손창환 님이 말을 못하니 말이

다. 하는 수 없이 손창환 님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할머니 귀에 독립문이요, 독립문이요 했더니 아! 독립문 하신다. 그리고 독립문으로 가는 전철로 안내했다. 종로 3가에서 전철을 하고 독립문에서 내리니 다시 봉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1 앞으로 갔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내려 이젠 혼자서 가야 한다. 흰 지팡이를 가방에서 꺼내 들고 지팡이를 펴고 더듬더듬 길을 간다. 내가 곁에 있지만 그는 모른다. 골목길에 들어섰다. 흰 지팡이의 폭이 좁아졌다. 더듬던 지팡이가 순간 방향을 잃고 전봇대와 부딪히기 전 얼른 뒷덜미를 잡아 세웠다.

누구세요?

나야 나!

아! 송목사님!

그러?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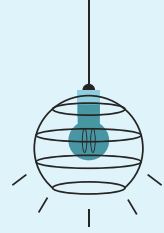
골목을 나오고 그와 함께 걷는 길. 그의 곁을 따라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마다 나의 목소리는 젖고 있었다. 저기 독립문이 보인다.

홀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곳에 가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알았다. 보이지 않는 곳 우리 곁에서 우리의 지금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 곁에서 방향을 잃을 때마다 힌트를 주신다. 힌트의 징검다리에는 언제나 약속의 무지개가 떠 있다는 사실을 환히 보는 날이다.





손끝세농맹인선교회는 우리나라 민간인 최초의 중복장애인 단체로 2016년에 4명의 농맹인과 4명의 봉사자로 시작하여 2024년 4월에는 농맹인과 봉사자 99명이 참여하는 농맹인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5월 화재로 송호일 목사의 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작은 예배 처소와 손끝세 농아인들이 내려와 쉬어가는 방 두 칸의 쉼터가 화마를 피해갔지만 주택은 지금까지 예산의 부족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끝세농맹인선교회를 통해 농맹인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의 밀알’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장로

서울연회 은평지방회 은평교회, 엔젤스헤이븐 대표



엔젤스헤이븐은 이 땅에서 기독교 복음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왔음을 증거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959년, 한국 전쟁의 참화로 가족과 갈 곳을 잃은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양육시설로 시작된 ‘은평천사원’은 은평구 구산동에 군용 천막을 설치하고, 거리의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의 출발점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평감리교회를 비롯해, 전국에 20여 교회를 세운 윤성렬 목사님과 20대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존 조셉 타이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의 며느리인 루스 노블 아펜젤러 선교사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한때 은평천사원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전전하며 비록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에 다시 웃을 수 있었고 꿈꿀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무릎 꿇고 도우라”는 설립자 윤성렬 목사님의 지고한 뜻은 후대로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청년 시절 자원봉사자로 이곳을 찾았던 조규환 장로(은평감리교회)는 미 대사관을 사직하고 이 사역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5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엔젤스헤이븐이 25개 기관과 함께하는 종합복지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은 1980년 은평재활원(구. 소망의집) 설립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를 시작했고, 66년이 된 지금은 지역복지, 국제개발협력(우간다, 베트남 등)으로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과 인력도 늘어나 현재는 40개의 산하 기관이 장애인은 물론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노숙인 모자가정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 협력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라는 성경 말씀의 설립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엔젤스헤이븐의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넘어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둔 보금자리로, 살고 싶은 집,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장의 관리하에 통제되는 ‘시설’이 아닌 이웃과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오랜 세월 지역에서 꾸준한 사역을 해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이웃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역에서 엔젤스헤이븐은 명실상부 선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 및 돌봄 서비스,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지원주택 사업 등 포괄적인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이 1994년 설립한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은 ‘인간중심, 지역사회중심, 참여와 변화 실천’을 미션으로 합니다. 개관한 이래 2009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복지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고, 2019년 이후로는 장애인복지의 전문성과 더불어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스헤이븐이 관심을 가지고 연계, 협력하며 연구하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의 실천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도움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 되어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나눔과 복지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엔젤스헤이븐이 그동안 쌓아온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시스템화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 모델을 창출하는 일이 또 하나의 밑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경쟁사회에서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교회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는 곳이며, 교회와 엔젤스헤이븐과 같은 기관이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이 지역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엔젤스헤이븐 운영에 있어 기독교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은 뺨을 때리는 사람을 감화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복지 사업은 ‘믿음의 증거가 선한 행위’라는 말씀에 기반한 선교이자 사역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한국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들은 단기간의 결실이나 성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교파별로 지역을 나누어 협력하고 신앙을 전제로 도와준 것이 아닌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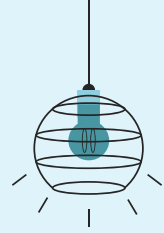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감화가 결국 크리스천이 되게 이끌었던 것처럼 엔젤스헤이븐도 그러한 정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믿기에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결실을 내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최선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하는 상태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엔젤스헤이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다운 삶이 있는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는 나눔을 희망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를 믿고 함께 해 오신 후원자님들의 신뢰에 대해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엔젤스헤이븐의 사업은 시설 안에 머무는 사역이 아닌, 지역과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인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기를 꿈꿉니다.

앞으로도 엔젤스헤이븐은 선진들이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일구어온 터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축복받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이 되는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여정에 기꺼이 동행하는 엔젤스헤이븐 사람들의 행복한 사명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한사랑교회는 행복한 예배로 행복합니다

최철용 목사

서울남연회 양천지방회 한사랑교회 부담임목사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는 건 참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행하는 건 더더욱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임을 공감하는데 행하기는 어려운 사역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넘어 공감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 ‘한사랑 장애인 선교팀’이 2012년 탄생하였습니다.

황성수 담임목사님이 한사랑교회가 지원해 온 인터넷 장애인선교방송인 ‘희망방송’을 10년 이상 대표로 섬겨온 강송진장로님(당시는 권사)에게 선교팀을 꾸려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출발한 장애인 봉사팀은 먼저 장애인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자, 장애우, 지체부자유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올바른 표현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친구이자 성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물론 손잡고 나들이도 나갑니다. 선교팀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점심식사를 섬기며 장애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름수영캠프를 열기도 합니다. 한 명의 봉사자가 장애인 한 명을 보조해야 하므로 많은 봉사자와 수고가 필요하지만, 물에서 나오기 싫어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한사랑교회 청년팀이 대거 자원하여 수영캠프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사랑교회는 매년 선교팀 주관으로 한사랑교회 장애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19년 4월에는 ‘차별에서 공감으로’라는 주제로 이민우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1, 2, 3부를 장애인 공감예배로 드렸고, 2021년 4월에는 ‘공감(The) 더하기’의 주제로 공감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자란 하예의 가족이야기를 다큐로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4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주일예배 1, 2, 3부를 장애인공감예배를 통해 황현기 목사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더 함께’의 주제로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의 연주와 간증으로 자매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름은 ‘행복한 예배’입니다. 먼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은 약간의 간식을 예배실 뒤에 세팅해 놓고 성도들을 맞습니다. 한 분 두 분 장애인이 예배실로 들어설 때마다 선교팀은 물론,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평소에 함께 예배드려온 비장애인들의 환영이 이어집니다. 이곳까지 오시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았을 그들의 발걸음이 반갑고 귀합니다. 말씀은 장애인 사역을 이어오시는 목사님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중보기도 순서입니다. 특별할 것만 같은 그들의 중보의 제목들이 어쩔 그리 비장애인과 같은지요.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구해도 괜찮은데, 영혼에 관한 긍휼과 사랑이 넘침을 볼 때마다 귀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인지 행복한 예배의 중보기도 시간에는 눈물이 넘쳐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리교회는 행복합니다

2025년 장애인 선교주일 자료집

발행일 2025년 4월 20일

발행인 황병배 (선교국 총무)

편집인 이승현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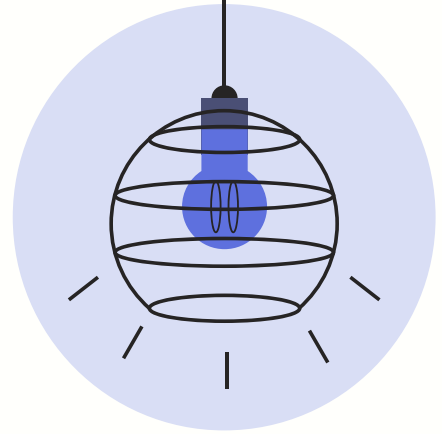
전 화 02-399-4340

디자인 비스케이프

2025.4.20.

2025

장애인
선교주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리교회는 행복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